

# 광주시, 에너지전환 마을 활성화... 시민주도 탄소중립 가속

태양광·녹색교통 등 다양한 활동  
내년 전환마을 5곳 추가 조성  
“시민참여 모델 전국 확산 기대”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광주지역 5개 에너지 전환마을이 시민과 마을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산과역학을 톡톡히 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마을에서부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실천기 위해 동구 지원마을, 서구 풍암마을, 남구 양림마을, 북구 일곡마을, 광산구 첨단마을 등 5곳을 에너지전환 시범마을로 선정한다. 이어 최근 이들 5곳이 모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마을별로 전환마을네트워크를 꾸리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상담과 컨설팅, 교육을 주관하는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해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 발전, 특화산업, 자원순환, 녹색교통, 채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점센터 1호점으로 광산구에 문을 연 첨단전환마을 에너지카페는 주변에



광주 첨단전환마을 에너지카페

소규모 거점공간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매주 주말 ‘기후위기 토요일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주민들이 참여해 ‘반짝반짝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민햇빛발전소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동구 지원센터를 주도한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연대는 골목길 주택들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집 에너지 사용량 기록단 리빙랩을 통해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택 에너지 효율화 리빙랩을 통해 노후주택 구조와 에너지 사용 현황을 조사·기록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5월 무등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앞으로 조합 중심으로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북구 일곡센터는 한세봉농업생태공원의 녹지공원에 자리잡았다. 거점센터를 마련한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는 센터가 자리한 공원에 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방문자센터 등 공원내 사용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

고 있다.

에너지전환 마을중 배움터와 태양광 에너지로 노을자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일곡마을 에너지농부활동을 통해 마을 내 태양광 설치 지점들을 조사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남구 양림센터는 자원순환, 에너지 전환교육과 함께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림동이라는 관광 명소에 걸맞게 거점센터를 에너지 전환 교육, 홍보 견학처로 활용하고 있다.

서구 풍암센터는 풍암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에너지전환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5kW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각종 에너지 교육들을 구비해 주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전환 감사단 양성교육도 진행중이다.

광주시에 5곳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전환마을 5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9월29일부터 탄소중립 전환마을을 추진중인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도 ‘에너지전환마을 사관학교’를 통

해 일찌감치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박필순 플랫폼 실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전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광주의 전환마을 사례는 하나의 ‘답’을 주고 있다”며 “광주의 탄소중립 전환사회를 위한 시민참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시민활동가들의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준비하는 과정과 에너지 전환 활동을 보면서 시민과 함께하면 기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느낀다”며 “시에서는 시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에너지전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실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등 6개 기관은 지난 4월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에너지 및 마을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전환마을 포럼을 열고 광주선언을 통해 시민 주도 마을에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홈쇼핑, 210석 규모 ‘부산 콜센터’ 오픈

신규 일자리 300개 이상 창출 기대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 적극 노력

홈쇼핑이 서울에 이어 부산광역시 제2콜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홈쇼핑은 지난 5일 부산 연산동에 있는 콜센터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홈쇼핑 이사회 의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옥찬 홈쇼핑 대표,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홈쇼핑은 이번 부산콜센터 구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300개 이상 창출하고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콜센터는 기존에 서울에서 운영해 온 삼암·가양센터와 함께 독립적으



지난 5일 부산 연산동 홈쇼핑 콜센터에서 진행된 오픈식에서 (왼쪽부터)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홈쇼핑 이사회 의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홈쇼핑 김옥찬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로 고객 응대가 가능하도록 총 210석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전제지변과 대규모 장애상황에 대응하고 상담원 인력 채용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했다.

홈쇼핑측은 이번 콜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접적인 투자 효과 외에도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홈쇼핑은 대표 판로지원 프로그램인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매년 5개 이상의 부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 판로개척을 돕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홈쇼핑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육성정책 개발을 통해 콜센터 산업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기문 홈쇼핑 이사회 의장은 “홈쇼핑은 고래사 어묵, 부산 낙곱새 등 부산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상품을 방송하며 판로를 열고 있다”면서 “이번 콜센터 설립이 직접적 투자효과 외에도 부산, 경남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전남도, 8개 기업서 270억 투자 유치

목포·순천·영암 3개 시군 협력  
103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는 목포, 순천, 영암 등 3개 시·군과 협력해 각 지역산업과 연계한 8개 기업과 270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목포, 순천, 영암에 10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목포 대양산단에 6개 기업이 168억원을 투자한다. 평화식품이 30억원을 들여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시설을 갖춘 새우젓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태창수산물과 목포영어조합법인도 각각 35억원, 20억원을 들여 목포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건조하는 가공공장을 신축한다.

신한이엔지는 32억원을 투자해 PVC 창호 및 판넬도어 생산공장을 신설한

다. 에이치디산업건설은 26억원을 들여 건축물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제조공장을, 대성공업은 25억원을 투입해 펌프 설치 구조물 제작공장을 구축한다.

영암특화농공단지에는 미로가 20억원을 들여 떡 제조공장을 신설해 독자적 떡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할 계획이다.

순천 울촌산단에서 전기전자거과 전동휠체어를 생산 중인 마이벨로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모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을 위해 시설 증설에 82억원을 투자한다. 유럽·북미지역 수출과 국내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기업 투자를 환영하고, 전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계획한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 “이웃사촌 시범마을, 지방소멸 대응 거점으로 만들어야”

경북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발전 포럼

다른지역으로 사업 확산 필요성 제기

경북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열린 ‘2021 이웃사촌 시범마을 발전포럼’에서 의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강성조 행정부지사,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특별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정희훈대경연

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추진 3년차를 맞아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 내년도 도내 확산 계획과 방향을 찾고 마련했다.

이 날 상주, 영덕, 청송 등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시군 공무원도 참석해 전문가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정희훈 연구위원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인구감소 읍면에 일 자리와 청년 친화 환경으로 조성해 지

방소멸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미숙 선임 연구위원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 이미홍 연구위원은 면단위 거점형성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이계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특별양여금과 연계를 강조했다.

이도선 동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역특화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황석연 행정안전부 서기관은 인구감소 지역 지정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영양군,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흥림산휴양림 내 무장애나눔길 설치

영양군은 흥림산자연휴양림 일원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무장애나눔길)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즐기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및 황토길 등을 조성하는 산림복지서비스사업의 일환이다.

영양군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흥림산자연휴양림 내에 테크로드

등 총 1km 구간의 무장애나눔길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레포츠시설 등과 함께 체험, 학습 및 치유를 집약하여 흥림산자연휴양림을 산림복지문화단지의 새로운 모델 제시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 체류형 산림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